

# 양현종 노련함·이의리 자신감 돋보였다

양현종 4이닝 무실점  
이의리 슬라이더·커브 체크  
'루키' 최지민 9회 3실점  
KIA, 두산과 4-4 무승부

KIA 타이거즈 이의리의 2022시즌 준비에 속도가 붙었다.

KIA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4-4 무승부를 기록했다.

마운드에 눈길이 쏠린 경기였다.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이 선발로 나와 두 번째 경기를 소화했고, 이어 이의리가 마운드에 올라 선발 등판을 위한 점검 무대를 가졌다.

양현종의 성적은 4이닝(56구) 3피안타 1볼넷 6탈삼진 무실점. 1회 2사 2·3루, 3회 2사 1·2루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련함으로 각각 박세혁과 김재환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실점 없이 등판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32개의 직구(최고 143km·평균 138km)와 함께 커브(113~117km)·슬라이더(123~127km)·체인지업(122~126km)은 각각 8개를 던지며 타이밍 싸움을 했다.

노련함이 돋보인 양현종, 이의리는 힘으로 승부했다.

지난 20일 롯데와의 시범경기를 통해 첫 실전에 나선 이의리는 이날 2이닝을 목표로 두 번째 등판에 나섰다.

1-0으로 앞선 5회초 출격한 이의리는 초구 직구로 박계범을 3루수 땅볼로 잡았다. 이어 조수행에게도 2개의 직구를 던지면서 2루수 땅볼을 만들었다.

강승호와의 승부에서도 공 2개로 1루수 파울플라이를 잡으면서 삼자범퇴로 빠르게 첫 이닝을 정리했다.

6회초 두 번째 이닝에서는 커브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을 구사하면서 변화구도 점검했다.

선두타자 안재석을 2루수 땅볼로 처리한 이의리는 이어 강진성과 김재환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2루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17개의 공으로 6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계획과 달리 이의리가 7회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세 번째 이닝은 공 7개로 마무리했다.



양현종

박세혁을 초구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고, 최용제는 4구째 승부 끝에 우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의리는 2구째 우익수 플라이로 오재원을 처리하면서 선발 등판에 앞서 진행된 점검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냈다.

이의리는 26·27일 예정된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와 프로 두 번째 시즌을 위한 리허설을 끝냈다.

이의리는 "볼펜에서 몸을 풀 때 앞으로 몸이 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썼더니 결과가 좋

았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했는데 비슷한 공에 타자들 배트가 나오면서 승부가 빨리 이뤄졌다"며 "포수 미트만 보고 자신감 있게 던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지난 등판에는 체인지업만 던졌는데 슬라이더와 커브도 체크했다. 다음에는 선발로 나오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모습 보여 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KIA는 4-4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1회 소크라테스의 우중간 솔로포로 선취점을 만



이의리

든 KIA는 7회 선두타자 최형우의 우중간 2루타로 다시 공세에 나섰다.

김석환이 2루 땅볼로 물러났지만 김호령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1사 1·3루, 대타 고종욱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2-0이 됐다. 김호령의 도루에 이어 박찬호·김도영의 연속안타가 나오면서 KIA가 4-0을 만들었다.

하지만 4-1로 앞선 9회 나온 '루키' 최지민의 제구가 흔들리면서 경기는 4-4 무승부로 끝났다.

최지민은 첫 타자 김인태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

했지만 2개의 몸에 맞는 볼 포함 4개의 4사사구를 남기면서 3실점과 함께 9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양현종은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타자들 반응을 많이 봤다.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진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한 경기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페이스를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 지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질이나 구종을 시험해봤다"고 이날 경기를 자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2일 오후 파주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 차포 빠진 이란... 벤투호 11년만에 승리 기회

내일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

코로나에 핵심 골잡이 2명 불참

한국, 이란 꺾고 조 1위 목표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란전 무승'의 한을 11년 만에 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란 핵심 골잡이 2명이 코로나19로 한국 원정 길에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4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란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A조 9차전을 치른다.

한국과 이란은 이미 각 조 2위까지 주어지는 본선 진출 티켓을 확보한 상태다. 이란이 1위(승점 22·7승 1무), 한국이 2위(승점 20·6승 2무)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벤투호는 이란을 꺾고 조 1위로 본선을 마쳐 '아시아 최강'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한다.

이란은 한국이 열세를 보이는 아시아의 거의 유일한 팀이다. 한국은 이란과 역대 32차례 A매치에서 9승 10무 13패로 밀렸다.

게다가 2011년 아시안컵 8강전 1-0 승리 뒤 11년 동안 7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마지막 승리 뒤 4연패하고, 이어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10월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이란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치른 최종예선 4차전 맞대결에서 벤투호는 우세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번 홈맞대결은 이란과 '악연'을 끊을 좋은 기회다. 이란의 최종예선 득점 1, 2위가 전원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란 대표팀은 당초 통지한 입국 명단에서 2명이 빠진 채 22일 오후 한국에 입국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빠진 선수는 메디 타레미(포르투)와 알리레자 자한바크시(페노르트)다.

이란은 최종예선에서 13골을 넣었는데 그중 절반인 7골을 타레미(4골)와 자한바크시(3골)가 책임졌다. 이들이 나서지 못하는 것은 이란에 큰 타격이다.

한국도 코로나19 때문에 나상호(서울)·정우영(프라이부르크)·김진규(전북)가 빠지고 조영욱

(서울)·남태희(알두하일)·고승범(김천)이 대체 발탁되는 등 소집 명단에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란과 달리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희찬(보르도) 등 핵심 공격수들은 건재하다.

주말 웨스트햄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시즌 첫 멀티골을 넣으며 골 감각을 한껏 끌어올린 손흥민은 22일 대표팀에 합류한다.

손흥민과 벤투호의 '윈투 펀치'로 활약하는 황희찬도 이날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 입소했다. 황희찬은 지난 13일 에버턴전에서 엉덩이 부상으로 교체돼 우려를 샀으나, 다행히 대표팀에 합류하게 됐다.

홍철(울산), 이용(전북)의 부상으로 측면 수비 전력이 100%가 아닌 점은 아쉽지만, 센터백 김민재(페네르바체)와 중원의 정우영(알사드) 등이 대표팀의 '척추 라인'을 튼튼하게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안 될 전망이다.

한편, 이란전 승리는 '실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을 올려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상위 포트에 배정된다면 약팀과 같은 조에 묶일 가능성이 커진다. /연합뉴스

## 전남드래곤즈, 재일교포 센터백 한호강 영입

전남드래곤즈가 요코하마FC에서 재일교포 센터백 한호강(30·사진)을 영입했다.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전남은 공수 밸런스를 높일 자원으로 한호강을 선택했다.

2016년 블라우브리츠 아키타(J리그3)를 통해 데뷔한 한호강은 186cm·80kg의 다부진 체격의 중앙 수비수로 J리그 통산 111경기에 나와 7득점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요코하마FC(J리그1)에서 주축 수비수로 활약하면서 27경기에 출전했다.

한호강은 재공권과 파워를 겸비한 수비수로 매끄러운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다. 전남은 이번 영입으로 수비력 강화를 이루고, 빌드업 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도 다양한 옵션을 보유했다.

한호강은 "좋은 팀에 입단하게 돼 영광스럽다. K리그는 처음이지만 빨리 팀에 적응해 K리그1 승격과 ACL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안산그리너스와 7라운드 홈경기를 갖고 4연승에 도전한다.



전남은 앞선 6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원정경기에서 손호준과 플라나의 골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과 함께 리그 3위에 올랐다.

이 승리로 전남이 6라운드 베스트팀에 선정됐고, 선제골을 기록한 손호준(MF)과 무실점 수리에 기여한 장순혁(DF)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 컬링 '팀 김' 세계선수권 4연승 질주

미국에 11-4 승리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팀 김'이 미국을 꺾고 세계선수권대회 4연승을 질주했다.

팀 김은 22일 캐나다 프린스 조지에서 열린 2022 여자 컬링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4차전에서 미국의 '팀 크리스텐슨'에 11-4로 승리했다.

2엔드에서 미국에 먼저 2점을 내준 팀 김은 3엔드에서 2점을 내 승부의 균형을 맞췄지만, 곧바로 4엔드에서 1실점을 해 끌려갔다.

하지만 5엔드에서 3득점에 성공해 승부를 뒤집은 뒤 6엔드에서도 1점을 스틸(선공으로 나선 엔드에서 득점)하며 앞서 나갔다.

7엔드와 8엔드에 1점씩 주고받은 팀 김은 9엔드에서 대거 4득점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미국전 승리로 4연승에 성공한 팀 김은 세계선

수권대회 첫 메달 획득 가능성을 높였다.

팀 김은 2018년에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0일 예선 첫 경기에서 강호 노르웨이(팀 로에르베크)를 7-6으로 꺾은 팀 김은 21일 2차전에서도 독일(팀 엔치)을 7-2로 제압했다.

이어 21일에 열린 3차전에서 체코(팀 바우디소바)에 8-7로 승리한 팀 김은 22일 미국마저 꺾으면서 4연승을 내달렸다.

팀 김은 23일 새벽 1시 스코틀랜드(팀 모리슨)와 예선 5차전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스코틀랜드가 팀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대회를 기권하면서 부전승을 기록하게 됐다.

팀 김은 23일 오전 11시 이탈리아(팀 콘스탄티니)와 예선 6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